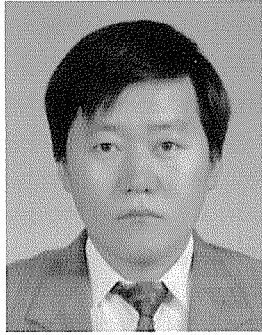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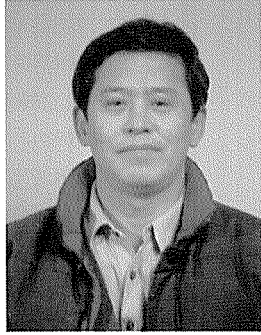




오홍근 부지회장



류중서 부지회장



김종감 고문

내일을 위해 부활의 날개를

용산지회는 회원수 면에서 타 지회보다 열세이다. 전체 지역의 절반이 넘는 미군 기지 등이 발전을 저해한 영향이 크다. 그러나 이런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회원의 자체 노력과 2000년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대대적인 재개발 등 미래의 발전에 대비하기 위해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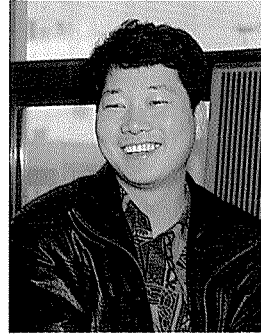
용산지회



황삼진 이사



이동일 이사



장창익 이사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 중 하나가 도심 한가운데 솟아 있는 남산이다. 이 남산을 중심으로 줄줄이 이은 구릉이 한강변까지 길게 펼쳐진다. 그 모습이 마치 용(龍)이 긴 몸을 뉘인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 지역의 이름이 용산(龍山)이다.

용산하면 누구나 쉽게 떠올리는 것이 지역의 상당 부분이 군사 지역이라는 사실이다. 미 8군 기지를 비롯해 국방부, 전쟁 기념관 등이 이곳에 있으며 이들 군사 지역이 전체 용산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용산구는 지역 특성상 다른 곳에 비해 발전 면에서 뒤떨어진 지역에 속한다.

그러나 용산이 옛날부터 낙후된 곳은 아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제과인들의 말을 빌리면 30년 전만 하더라도 용산은 서울 종로·중구에 비견될 정도로 오래전에 형성된 상권으로 번영을 누렸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과거 용산 지역의 제과점이 장안에서도 유명했던 '파리제과'를 비롯해 100여개에 이르렀던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부분 제과인의 집결체인 지회 및 지부는 초기 설립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하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 타 업종 단체에 속해 있다가 뜻을 모아 조직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용산지회(지회장 유경오)는 출발부터가 남달랐다. 과거만 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 일찍 형성된 상권을 바탕으로 많은 업소가 있어 당당하게 '용산지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출발한 것이다.



유경오 지회장

28년의 오랜역사, 창립초기 최고의 번영누려

현재 용산지회는 1969년 창립을 시작으로 28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유경오 지회장을 비롯해 2명의 부지회장, 각각1명의 고문·감사와 8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50여 회원을 보유 중이다. 또 지역별로는 원효로, 동부 이촌동, 서계·청과동, 한강로 등 6개 구역으로 분할된 구역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구역장 제도를 통해 용산지회는 회원과 지회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담당해 하고 있다.

특히 용산지회는 어느 지역 못지 않게 회원의 친목이 두터운 것이 특징이다. 과우 친목회가 결성돼 있어 한달에 한번 모임을 가짐으로써 서로의 애·경사는 물론 제품·경영 등 정보를 활발하게 교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끈끈한 친목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체육대회와 야유회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다져온 친목과 화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결집력을 바탕으로 용산지회는 비록 개인 차원이긴 하지만 지역내 있는 '영락 보린원'에 빵을 전달해 불우한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고 있다.

현재 용산지회는 앞서서 언급된 바 있지만 50여 회원으로 서울의 여타 지회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이다. 과거 100여개가 넘는 업소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양면에서는 퇴보를 한 셈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용산지회는 열악한 지역 환경이 주 원인이라고 꼽는다.

사실 용산지역은 상당 부분이 미군 기지 또는 군 관련 시설로 오랫동안 개발면에서 제한을 받아왔다. 동부 이촌동의 아파트 단지를 빼면 나머지 지역에는 아파트 주거지가 전무할 뿐더러 주거 지역이라 할 수 있는 후암동, 한남동, 해방촌, 이태원 지역의 주거 밀집도도 타 지역 주거지에 비해 열세이다. 더욱이 도로를 중심으로 한 상권의 발달 정도도 원효로는 오래전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한강로의 경우도 숙대 입구와 남영 전철역 부근을 제외하면 발달이 극히 저조하다.

게다가 비교적 양호한 이들 상권에는 커피, 피자, 햄버거 등 유사 업종과 의류점 등이 대거 진출해 있어 대로변에서 제과점을 찾기 힘들 정도이며 이런 지역 환경탓에 많은 업소들이 하나 둘 없어지기 시작해 2~3년전부터 회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50여 회원 중 규모가 큰편에 속하는 점포가 손꼽을 정도이며 10개 업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업소는 업주 스스로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실정은 용산지회 회원들이 처한 어려움을 잘 반영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 극복 위한 노력과 내일의 발전 준비

이런 점은 용산 지회 회원 업소 스스로의 발전 노력이 미흡해서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지역의 발전 침체가 너무도 큰 영향을 끼쳐 왔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그동안 용산지회 회원 업소의 발전을 저해하는 족쇄나 미천가지였던 미군 기지 등이 이전할 것으로 알려져 희망을 던져주고있다. 이전 계획만 발표되고 시기는 아직 미정인 상태지만 2000년에 이르면 지금의 용산 지역 면적의 반이 넘는 공간이 시청 또는 아파트 등 주거 지역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용산구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한 용산 지회 회원 업소들도 지금까지의 어려운 환경에 지배받던 태서 벗어나 제품·경영 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한 차원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용산지회 자체도 다가올 미래를 위해 조직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임직원 구성에 있어서도 의욕적으로 일할 젊은 이사진의 참여를 대폭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용산지회의 환경은 상권이나 회원 수에서 타 지회보다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지역 상권의 발전 담보의 영향이 크다. 이로 인해 회원 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반대로 적은 회원이 더욱 똘똘 뭉치는 친목과 단합의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단합을 바탕으로 용산지회는 2000년 미군 기지 이전으로 변화를 겪게 될 미래를 위해 또 과거의 번영을 준비하고 있다. [K]

(글/박종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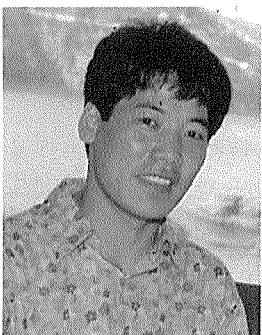
준비한다



육심옥 이사



고준 이사



서병래 이사



이상용 이사



최주홍 이사